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6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17년 11월 20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교섭창구 단일화 폐기! 국회 앞으로!

다시 한 번, 국회 앞으로

민주노총이 다시 국회 앞에서 농성에 들어간다. 지난 달 1차례 국회 앞 농성을 통해 노동법 제, 개정을 촉구했으나 여전히 발의조차 안된 법안들이 많다. 농성투쟁을 통해 노동 관련 개혁입법을 쟁취하고, 투쟁하고 있는 주체들의 현안문제를 부각시켜 향후 국회를 상대로 하는 투쟁의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법 바뀌어야 노동자가 산다!

이번 국회 앞 농성에는 다양한 노동조합들이 다양한 현안문제를 의제로 삼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해고자 복직 및 법외노조 철폐,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폐기, 손배가압류 폐기 등 다양한 문제들이 이야기될 예정이다. 우리 사회가 노동존중 사회로 가기에 아직도 이렇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농성은 11월 23일(목) 시작해 12월 8일(금)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 기간 중 지부는 11월 23일(목)부터 24일(금)까지 일정에 함께할 예정이다.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 개혁법안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및 각 정당 앞에서 투쟁을 전개한다.

교섭창구 단일화 폐기될 때까지!

지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가 폐기되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회를 상대로 하는 투쟁이 아주 중요하다. 이번 농성을 비롯해 앞으로 대 국회 투쟁이 많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직 법안 발의조차 안된 상황을 고려하면 2018년에도 계속해서 싸워야한다.

복수노조에서 소수노조는 아무런 권한도 가질 수 없는 악법을 반드시 폐기시키고 모든 노동자가 노동3권을 누릴 수 있도록 투쟁하자!

민주노조 탄압 방관하는 충주노동지청 규탄 결의대회

현대성우메탈에 금속노조가 설립된지 7개월이 됐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교묘한 탄압과 차별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었다. 지금 현재도 무급전임을 마치고 현장에 복귀해서 근무하겠다고 하는 지회장을 일을 못하게 하고 있다. 또한 금속노조 간부, 조합원을 표적으로 징계나 배치전환을 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해보고자 충주노동지청장을 직접 만나고 진정서를 접수했지만, 충주노동지청은 직무유기로 일관했다. 진정서 접수 3주만에 딱 1차례 조사를 진행했을 뿐, 아무런 해결의지가 없다. 지청장을 직접 만나서 문제 해결을 요구해도 1달이 되도록 현장 한 번 방문한 적 없다. 문제인 정부가 적폐청산, 노동존중을 말하지만, 정작 노동 적폐는 노동청 안에 있었다.

지부는 11월 20일 16시 충주노동지청 규탄 결의대회를 연다.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충주노동지청에게 노동자들의 분노를 보여줄 것이다.

* 이번주 일정 *

■ 충주노동지청 규탄 결의대회

11/20(월) 16:00,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앞

■ 지부교섭 조인식

11/22(수) 16:00, 한온시스템 교육문화관

■ 민주노총 직선제 합동 연설회

11/20(월) 19:00,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11/22(수) 19:00,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